현대 학문정신 비판

Critique on the Contemporary Science Thought

양승훈

Ⅰ. 서언
Ⅱ. 현대 학문정신과 이에 대한 기독교적 비판
Ⅲ. 맺으면서

양승훈,
1955년 생으로 경북대 사대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반도체 물리학으로 이학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 년 동안 한국과학재단 Post Doc.으로 시카고대학에서 연구하였고 경북대학교 물리교육과 부교수로 재직하면서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기획담당으로 사역한 바 있으며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과학사를 공부하였고, 현재 휘튼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 저서로는 「기독교적 세계관」, 「기독교적 학문연구」, 「현대과학 정신과 기독인의 대응」, 「기독교 세계관의 이해와 적용」 등이 있고, 수필집 「낮은자의 평강」이 있다.

Abstract

This paper surfaces six secularized motives of modern academic activities : academic activity as a means of getting power, hidden motive of fragmented knowledge, human as a part in a big project, disappeared vision of absolute knowledge, liberating function of knowledge, excessive competition for the first discovery. After criticizing each motive, three Christian ideals in an academic persuit are briefly presented.

Ⅰ. 서언(序言)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여러 특징이나 신분들 중의 하나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한 아내의 남편이며 두 자녀의 아버지이며 낚시를 즐기는 사람이며 교사이며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은 우리 생활의 여러가지 영역에 첨가된 또 다른 하나의 영역이 될 수 없다. 도리어 모든 일을 대표하고 규정하며 특징지어야 한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전체를 요구하듯이 기독교는 현실의 모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극히 포괄적이다. 우리는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았다(마 22:37, 막 12:30, 눅 10:27).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어떤 특정한 견해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언제든지 탈퇴가 가능한 써클에 가입하는 것처럼 "나는 그냥 기독교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경륜 속에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엡 1:4, 5).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이며 이것은 인간이 된다는 것과 본질상 비슷하다. 한 사람의 인간됨(person-ness)이 그의 모든 일을 특징짓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의 모든 행위를 특징짓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여러가지 양태가 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하루의 많은 부분을 학문과 관련한 활동으로 보내야 하는 기독 학자나 학생들에게 있어서 학문은 신앙과 무관할 수 없다. 학문적으로 유물론을 주장하는 철학자가 교회에서 유신론자가 될 수 없고 무신론적 진화론을 옹호하는 생물학자나 지질학자가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창조 기사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현대 학문정신에 대해서 살펴 보고 이에 대한 기독교적

인 조망이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 보고자 한다.

Ⅱ. 현대 학문정신과 이에 대한 기독교적 비판

오늘날 학문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인류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학문이 지배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으며 또한 스스로도 학문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문활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활동이며 또한 그러기에 반드시 기독교적인 조망이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이다. 그러면 이러한 학문활동의 근저에는 어떤 정신들이 있으며 그 문제들은 무엇인지 살펴 보자.

첫째, 학문이 힘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 고대 희랍인들에게 학문의 목적은 앎 그 자체였다. 지혜(sophia)를 사랑하는 것(philos)이 곧 학문의 목적이었다.

이들에게 실용적인 목적을 위한 학문 개념은 없었다. "페르시아의 왕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원인론(aetiology)을 발견하는 것이 더 큰 수확이다"라고 한 데모크리투스는 이러한 희랍인들의 생각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에델슈타인(Ludwig Edelstein)에 의하면 희랍인들은 객관적 즐거움, 고양된 통찰력, 적극적인 성취의 경험을 지식의 이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학문 이상은 중세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실 중세까지만 해도 학문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덕이요 인간 완성의 길이었다. 동양의 四書三經과 비슷한 중세 schola(학원)의 三學(trivium : 문법, 수사학, 논리학)과 四學(quadrivium : 수학, 음악, 기하학, 천문학)은 실용적인 학과보다는 다분히 교양과목(liberal arts) 중심이었다.

이러한 학문의 이상이 변질된 것은 근대로 들어오면서부터였다. 지식을 힘으로서 이해한 첫번째 근대인은 영국의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이었다. "아는 것이 힘이다"(Knowledge is Power)라는 개념은 근대과학의 탄생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힘으로서의 지식은 18세기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실재적인 힘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학문활동(주로

과학연구)을 통해 얻은 지식은 곧바로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한 힘으로 동원되어 서구인들의 제국주의가 시작된 것이다.

둘째, 지식의 파편화이다. 과거 동양의 四書(論語, 孟子, 大學, 中庸)와 三經(詩經, 周易, 書經)이나 서양의 三學과 四學은 세계와 인간, 나아가 창조주 하나님(물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경우도 있었지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안목을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모든 지식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의 지식을 알면 다른 분야의 지식도 절로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 이는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이 하나의 높은 산을 오르면 올라가 보지 않은 주변의 작은 산들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과 같았다. 춘추전국시대의 제자백가(諸子百家)에 속한 학자들이나 우리나라의 이퇴계와 이율곡, 희랍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하여 중세의 어거스틴과 로저 베이컨(Roger Bacon), 심지어 근대의 라이프니쯔(Leibniz)와 괴테(Goethe) 등도 일종의 만물박사들이었다.

이에 비해 최근의 학문 추세는 폭발적인 지식의 증가와 극단적인 분화의 결과로 아무리 세계적인 석학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좁은 전공분야가 아니면 상식 이상의 지식을 갖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제 대학은 박사가 아니라 "狹士"만을 양산하고 있을 뿐이다. 한상인 씨의 말을 빌면 이제 더 이상 산을 오르는 등산가형 학문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며 땅을 파고 들어가는 두더지형 학문만이 존재할 뿐이다. 오늘 우리는 깊이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간 두더지형 전문가의 말이 큰 설득력을 갖는 시대에 살고 있다. 사람들은 통합적인 권위를 가진 목사님이나 신부님의 말보다는 전문적인 권위를 가진 과학자의 말을 더 신뢰한다.

그러면 두더지형 학문의 문제는 무엇인가? 땅을 파고 들어갈수록 자기의 전문분야는 더 깊이 알게 되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으며,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연구가 다른 사람들의 연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아가 자신의 연구가 전체 인류문화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는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적 가치에 근거한 책임있는 연

구(responsible research)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연구의 대형화로 인한 인간의 부품화이다. 이것은 특히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사실 근대과학의 탄생 이전까지만 해도 많은 학자들은 개인적인 취미로서 연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연구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연구의 처음부터 끝까지 알 수 있었고 심지어 자기의 연구 결과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관해서도 알았고 또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연구하는데 필요한 돈은 자기 스스로, 혹은 개인적인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근대로 들어오면서 연구의 규모가 커지고 전문화됨에 따라 취미로 연구를 하는 딜래당뜨와 전문가가 뚜렷이 구별되게 되었다. 연구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전문가들은 연구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나 대기업체들로부터 지원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따라서 자동적으로 연구에 종사하는 학자들(특히 과학자들)의 신분은 과거의 자유인에서 고용인 혹은 월급장이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또한 연구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력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심지어 한 연구 프로젝트 내에서도 역할을 분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세계 제2차대전 전후하여 등장한 국가 주도의 슈퍼 프로젝트들은 규모가 너무나 방대하여 연구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모조리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는 아이러니칼한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다. 원자탄을 만들었던 맨하탄 프로젝트, 입자가속기 건설과 이를 이용한 실험, 우주개발 프로젝트, 차세대 항공기 개발 프로젝트, SDI 프로젝트들은 모두 천문학적인 예산과 수천·수만명의 과학자들이 동원된 대표적인 수퍼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대규모 프로젝트 내에서 과학자들은 자기가 연구하는 것이 인류사회와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기가 어렵게 되었다. 또한 안다고 해도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부품화된 연구에 대하여 어떤 기독교적인 조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적 인간의 비인간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과연 대형 프로젝트의 연구 결과의 응용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모든 기독 학자들의 고민이 되고 있다.

넷째, 절대 진리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 중세 유럽과 같이 비교적 단일 가치관에 의해 지배되던 시대의 학자들은 절대진리에 대한 이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와 기독교가 지배종교로서의 위치를 점점 상실해 감에 따라 사회는 점점 다양한 가치들에 의해 지배되게 되었다. 단일 가치관에 의해 지배되던 시기의 사람들은 비교적 쉽게 통일된 의견을 가질 수 있었으나 다양한 가치가 경쟁하는 사회에서는 학문이론에서도 일종의 적자생존의 원리가 적용되게 되었다. 따라서 학문이론에서 무엇이 적자의 조건인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적자이론의 조건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세계 사상사의 커다란 두 흐름인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비교해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오늘날의 학문정신은 근본에 있어서 유대-기독교적이라기 보다 다분히 희랍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학문정신은 직관적, 통합적, 유기체적, 계시적인 유대-기독교 정신에 근거하고 있다기보다 논리적, 분석적인 희랍정신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문의 이상도 다분히 희랍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때 어떤 주장의 진위를 가늠하는 기준으로서 사용되었던 성경은 학문의 세계에서 발붙일 근거를 잃어가고 대신 진리의 기준은 논리성으로 대치되었다. 절대진리는 존재하지 않고 단지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가진 이론이 더욱 설득력 있는 논리가 나올 때까지 잠정적인 진리가 될 뿐이다. 포퍼(Karl Popper)가 모든 진리는 반증될 때까지의 잠정적인 진리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비슷한 논리적 설득력을 가진 주장이 있다면 상반되는 주장이라고 할지라도 둘 다 잠정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이러한 진리의 복수성은 현상의 기술, 예측에 관심이 있는 자연과학보다 인간과 인간사회를 다루는 인문·사회과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 예로 역사를 생각해 보자. 역사적 사건에 대한 바른 이론은 누가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하느냐에 달려 있다. 한때 바른 이론이라고

받아들여진 이론이라도 더 나은 논리로 설명하는 이론이 나오게 되면 과거의 진리는 거짓이 되고 새로운 주장이 진리가 되는 것이다.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왜 일어났는지 보다 누가 더 설득력 있는 논리를 세우느냐가 중요하게 되었다. 오늘날 역사가 서구중심의 역사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과거 세계에서까지 서구인들이 실제로 역사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이라기보다 이들이 자기들의 역사를 더 많이 연구하여 설득력 있는 논리를 많이 세워 놓았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건국 역사 200여 년에 20세기 이전까지 세계과학사에 거의 기여할 만한 업적이 없었던 미국의 과학도 수많은 미국 과학사가들이 엄청난 연구비를 받아 그럴듯한 미국중심의 세계 과학사를 꾸며 놓으니 그게 역사의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반면에 수천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 과학사의 경우에는 수많은 발명과 발견들이 있지만 세계 과학사와 관련한 이들의 중요성을 설득력 있는 논리로서 세워놓지 않으니 없는 것과 진배 없는 것이다. 아무리 우리의 선조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금속활자를 주조하여 사용했다고 주장해 봐야 이를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는 한 그 공로는 구텐베르크(Gutenberg)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세계 최초의 발명문자 국가로서 아무리 한글의 우수성을 자랑하더라도 이를 다른 글자들과 비교하여 왜 우수한 지에 대한 논리를 만들지 않는 한 공염불(空念佛)이 되고마는 것이다. 오늘날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도 한 예가 될 수 있다. 그러한 일본인들의 행위는 그것이 우리의 민족감정과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일 뿐이다. 그것과 비슷한 왜곡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논리를 세울 수 있는 학자들과 돈이 있고 이를 선전하는데 필요한 힘이 있는 나라의 역사가 과거에도 역사의 헤게모니를 가졌던 것처럼 둔갑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역사는 과거를 더듬어 가는 학문이라기보다 현재의 힘(power)으로 과거를 재구성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절대진리에 대한 이론가의 보편주의적 이상이 깨어지고 어떤 이론이라도 새로운 이론에 의해 뒤집어질 수 있다는 역사가의 상대주의가 이기게 된 것이다.

인문·사회과학에서 진리의 잠정성과 복수성 밖에 발견할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은 절대진리 대신 비교적 불변의 사실(fact)을 발견할 수 있는 자연과학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특히 금세기에 들어와 인문·사회과학의 제분야에서 자연과학적 방법을 앞다투어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는—이러한 추세는 이미 17세기부터 시작되었지만—근대과학의 발생 이후 지난 수백년간 자연과학 분야에서 정량적, 수리적, 실험적인 방법을 도입함으로 이룩한 눈부신 성과에 대한 매력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가치나 지혜와 같은 정량화할 수 없는, 지식의 형이상학적인 요소들을 추구하면서 끝없는 논쟁에 휘말리기보다는 정량화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자연과학적 사실과 같은 지식의 형이하학적인 요소만을 추구하여 학문의 콘센서스를 만들어내고 이를 진리와 동일시하고 있다.

인간의 이성에 근거한 논리성이 진리와 비진리를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논증이 가능하면 진리가 되고 그렇지 못하면 비진리가 되는 오늘날의 세대에서 과연 기독교적인 의미의 절대진리와 진리의 기준이 가능한가? 또한 절대진리 혹은 절대진리의 근거를 믿는 기독 학자들이 잠정적 진리 내지 현상의 진술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인가? 학문적인 진리와 종교적인 진리는 구분되는 것인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학문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던져지고 있다.

다섯째, 학문의 해방적 기능이 지나치게 넓게 정의되고 있다. 과거 인류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천둥, 번개와 같은 자연현상이나 일식, 월식, 천체의 合(conjunction)과 같은 천체현상을 산들의 진노로 보고 경외감과 공포감을 가졌다. 고대와 중세의 점성술, 연금술, 신비술, 카발라(cabala : 숫자를 가지고 점을 치는 유대인들의 점술의 일종) 등은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 사람들의 자연관을 보여주는 몇몇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지(人智)가 증가하고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은 이러한 자연의 공포로부터 점점 해방되게 되었다. 과거에 신비롭게 여겨졌던 여러 현상들은 자연적 현상으로 해석될 뿐 아니라 나아

가 이러한 현상들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현상들을 인간이 조절할 수 있게 된 경우(인공강우, 유전자 조작 등)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학문은 어느 정도 해방적 기능을 갖고 있으며 또한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학문의 해방적 기능은 기독교 신앙과 관련해서는 어떤 함의를 갖는가? 학문이 인간 정신을 자유케 한다는 사상은 고대 희랍에서부터 존재하였으나 이 기독교 신앙과 관련하여 본격적인 반동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18세기 후반 계몽시대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이러한 해방적 기능이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인간 사회나 개개인에게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구속이라고 보고 여기서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을 학문의 한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신학에서부터 학문의 제분야에 이르기까지 해방(자유주의) 정신이 팽배하기 시작하였다. 신학에서 슐라이에르마허(E. Schleiermacher)의 성경 해석학(hermeneutics), 영국의 자연신학적 조류, 독일의 고등비평 등은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뿌리로 작용하였다. 성경도 고대인들이 남긴 다른 많은 서적들과 똑같이 또 하나의 고전으로 해석됨에 따라 계시와 신적 영감의 요소들이 성경에서 제거되었고 절대진리에 대한 개념은 점차 상대화되기 시작하였다. 신학이 다른 학문과 더불어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하나의 학문으로 전락하게 되자 자유주의 신학교일수록 새로운 연구 업적들이 많이 나오는 듯이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자유주의 신학은 현대 학문정신을 가장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학문은 진리를 추구하기 보다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새로운 것의 추구는 새로운 발견에 대한 개인적 희열과 더불어 첫번째 발견자에게 주어지는 커다란 경제적·사회적 보상이 주요 인센티브로 작용한다. 자연과학에서는 새로운 것의 발견은 노벨상을 비롯한 수많은 물질적 보상과 영예가 따라오며 인문·사회과학에서는 학파 형성과 더불어 수많은 출판물의 보상이 따라온다. 그러나 아무리 굉장한 업적이라도 두번째 발견자에게는 커다란 보상이 따라오지 않는다. 이것은 진리를

추구하기보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학문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다. 바울 사도가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니라"(행 17:21)고 한 것으로 미루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학문의 정신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는 것 같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학문정신은 절대진리의 이상을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과 많은 갈등을 야기할 소지를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을 비롯한 세속학문에서는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에 반하는 정도가 클수록 더욱 더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커다란 학문적 족적(足跡)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현대학문, 특히 인문·사회과학에서는 종래 인간에게 굴레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종교나 여타 미신, 특히 기독교의 굴레를 타파할 수 있는 이단적이고 새로운 이론을 고안하는 경쟁을 한다고도 할 수 있다. 근래에 한양대 민희식 교수의 "예수는 석가의 제자"라는 주장이나 마광수 교수의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라는 책은 (마교수의 책은 수필이지만) 이러한 학문정신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맺으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학문연구는 신성하다고 오해하고 있다. 학문정신을 인간완성의 길로 본 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이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활동이 자본주의적 동인을 가짐에 따라 힘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고 학문이 직장, 돈, 명예, 권력을 얻기 위해 추구되고 있는 현실로 볼 때 현대의 학문정신은 고대의 학문 이상과는 판이하다. 어떤 의미에서 학문동인은 경제동인, 권력동인과 별로 다르지 않다. 적자생존의 물질주의 사회에서 학문동인은 상인들의 돈버는 열정이나 정치가들의 정권욕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세속적인 학문정신 속에서 학문을 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학문을 해야 하는가? 이것은 어제 오늘의 질문이 아

니라 근대과학이 시작된 이래 대부분의 기독 학자들의 고민이었다. 고민의 역사가 길다는 말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그만큼 쉽지가 않다는 말이다. 이 글에서도 역시 명쾌한 대안을 제시할 수 없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몇 가지 원리적인 제안을 하고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과 적용은 우리 모두의 숙제로 남기려고 한다.

먼저 학문을 할 수 있음은 자연이나 논리세계에 질서가 있기 때문이다. 질서는 우연의 산물일 수 없으며 전지, 전능하신 창조주의 지혜와 설계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학문의 명제적 과업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먼저 그가 계신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히 11:6).

다음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의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바라면 학문연구의 궁극적 목적도 인간세계에서 추구해서는 안될 것이다. 성경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고 말한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은 학문활동까지도 포함하는 말이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학문활동까지 포함하여 그 자체가 궁극적인 추구의 목표가 될 만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궁극적인 추구의 목표가 될 만한 것은 쉽게 숭배의 대상이 되며 이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십계명의 제일계명에 위배된다.

끝으로 모든 학문연구의 결과는 이웃사랑과 관련되어야 한다. 이웃사랑에 대한 명제는 비단 학문활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활동영역에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학문세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학문연구나 그 결과의 사용이 이웃사랑의 길이 될 때 창조주의 의지 내에서 학문활동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문활동을 통해 지식의 근본이 되는(잠 1:7)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학문영역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장이 될 것이다. 통연구